

KT 노동조합

KT TRADE UNION
2006년 6월 30일(금)

6th

■ 발행인: 지재식 ■ 편집인: 최광수 ■ 주소: 463-71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 ■ 대표전화: 031-727-4820(편집국 4836) ■ 팩스: 031-727-4815 ■ 홈페이지: www.kttu.or.kr ■ 편집디자인: 디자인 여백(02-2279-9631)

임단투 승리를 위해 전진하자

7월말 임단협 돌입... 외국인 주주의 눈치만 보는 경영진의 무능 심판 할 것



[표1] KT의 이익과 배당

년도	2003	2004	2005	2006
당기순이익	12,897억원	17,995억원	13,592억원	
영업이익	12,431억원	21,271억원	16,599억원	
배당	4,215억원	6,323억원	6,369억원	
주식소각	1839만주 소각 (시가 1조 1981억원)	무	무	256만612주 매입 (522만주 매각 및 소각예정) 약2천억(주당38,300원기준)

[표2] 물가인상과 임금인상률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경제성장률	8.5	3.8	7.0	3.1	4.6	3.9	5.0
물가인상률	2.3	4.1	2.7	3.6	3.6	2.7	3.0
경제성장률+물가인상률	10.8	7.9	9.7	6.7	8.2	6.6	8.0
임금인상률(1)	3.0	6.6	4.9	7.0	3.5		
임금인상률(2)	8.0	5.1	11.2	9.2	6.0	7.5	
KT임금인상률	5.5	동결	3.5	2.0+3.0 (일회성)	2.0 +50만원 (일회성)	3.0+(성과 급100%+ 주식60주· 일회성)	

주: 1 2005, 2006년 경제성장률은 한국은행 추정 및 전망치임, 2 임금인상률(1)은 전체노동자 임금인상률이며 피용자보수총액을 임금노동자수로 나눈 '노동자1인당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했고, 임금인상률(2)은 5인이상(1999년까지는 10인 이상, 2005년은 1-10월 누계 평균) 상용노동자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했음.
자료: 한국은행, 『2006년 경제전망』(2005.12);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각년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사측은 올해 초부터 성과급 지급에 대한 합의를 지지부진 연기하면서 현업에 경영 상황을 과대포장하고 위기감을 확산시켜 왔다. 특히 경영실명을 방자해 정상적인 교섭장구를 무시한 채 임금피크제가 도입을 유요해 왔다. 이는 사측이 사전 공작을 통해 노동조합의 약화를 꾀하면서 경영의 잘못을 조합원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노동조합은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사측의 노조파괴공작과 조합원 공갈 협박에 대해 정면돌파를 선언했다. 이어 KT그룹공공임단협 선언과 쟁의발생 결의 등을 거치면서 임단협 투쟁 승리를 위한 최정점으로 달려가고 있다.

올해초부터 단체교섭이 녹록치 않을 것은 예견돼왔다. 사측이 2007년 복수노조 도입전 어떤 식으로든 노동조합을 약화시

키고 단일한 대외가 만들어질 수 없도록 분열공작을 펼칠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은 출범 초부터 이러한 사측의 공작에 대비해 전 조합간부가 ▲재임기간 중 일체의 전환직 및 승진을 하지 않을 것 ▲노동조합의 지도집행력을 높이고 통일 단결된 조직을 건설하기 위해 결정된 사항은 반드시 실천하는 간부가 될 것 등을 결의하고 조직을 강화해 나갔다. 이어 조합간부 역량강화교육을 통해 임금피크제의 문제점 등을 공유하고 향후 투쟁을 대비 조합간부들의 마음을 다잡아갔다. 급기야 6월 1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발생을 결의하고 그 방법과 시기를 위원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언제든 투쟁에 돌입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노동조합은 이번 임단협을 통해 경영진

의 무능력함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경영진은 마땅히 KT발전을 위해 신성장 사업을 발굴하고 중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그러나 민영화 이후 경영진들이 한 것이라고는 엄청난 배당과 조직개편뿐이었다.

[표1]에서도 볼 수 있듯이 당기순이익의 50%에 육박하는 자금을 주주배당에 쏟아 붓고 있는 실정이다. 주주의 속성상 배당을 확대하는 경영진을 지지한다. 또한 배당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게 된다. 특히 외국인 주주들이 그러한 경향을 뚜렷하게 보여왔다.

경영진들은 자신들의 신분을 보장받기 위해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외국인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는 동안 집적 회사는 투자여력이 축소되고 조합원들에게는 더 큰 노동강도를 요구해오고 있

다. 기업은 생존하기 위해서는 투자의 연속성이 필요하다. 설비에 대한 유지보수와 함께 새로운 사업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만 고용이 유지 성장될 수 있고, 직원들에 대한 적절한 배분이 이뤄짐으로써 동기를 유발하고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설비투자는 고용안정을 가져오는 동시에 사회에도 순기능의 역할을 하지만 배당확대는 사회양극화만을 더욱 가속화시킨다.

그동안 조합원들은 통신회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고통을 감내해왔다. 수천억원의 이익이 발생해도 조합원들은 참여했다. 외국인들에게 1조3천억원이 넘는 배당을 실시할 때에도 조합원들은 물가 인상에도 못미치는 임금인상을 받아들였던 것이다. 그러나 정작 경영진들은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기보다는 오히려 고용불안을 야기시키고 조합원들에게 퇴직을 강요하기까지 했다.

[표2] 갈수록 심화되가는 노동강도와 노동조건은 조합원들에게 더 많은 피와 땀을 요구하고 있다. 각종 생산성, 유지율 등의 지표는 현장 조합원들을 압박해 가고 있으며 심지어는 비용을 축소를 위해 사무소도 풀까지도 대폭 줄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사측의 막가파식 노동탄압을 분쇄하고 경영진의 무능함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보여야 할 때이다. 또한 삶의 질을 유지하고 조합원들의 성과에 대한 응분의 보상도 반드시 쟁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임단협 승리가 집행부의 의지로운 관철되는 것은 아니다. 하부 조합간부들과 조합원 전체가 단결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

KT그룹노동조합 공동임단협 가시화

KT파워텔노조 쟁의발생결의... KT노조 대의원대회 예정



▲ KT파워텔 노동조합이 대의원대회를 열고 쟁의발생을 결의하고 있다

KT그룹노동조합의 공동임단협이 점진적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노동조합이 지난 6월 1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쟁의발생을 결의한 뒤 KT파워텔노동조합도 29일 쟁의발생을 결의했다. 또한 KT노조노동조합도 오는 7월초 대의원대회 개최를 예정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KT파워텔노동조합 박홍식 위원장은 대의원대회에서 "7월 임단협 돌입을 준비하고 사측의 도발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쟁의발생 결의가 필연적이라고 판단했다"면서 "쟁의발생을 결의하고 그 시기와 방법을 위원장에 위임해 준다면 KT그룹노동조합들과 공동투쟁을 공고히 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재식위원장은 연대사를 통해 "KT가 어렵다면서 외국인에게 1조3천억을 배당했다. 그러는 사이 우리 조합원들을 1만명 가까이 줄였다. 결국 조합원들의 인건비를 줄여 외국인의 배를 채워준 것이다."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이번 투쟁에 KT노동조합이 앞장설 테니 KT그룹노동조합이 모두 함께 전진하자"고 밝혔다.

KT그룹노동조합협의회는 지난 5월 23일 대표자회의를 열고 신자유의 물결속에 자신의 악랄한 노동탄압에 맞서 전체 노동자가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어 KT가 경영지침을 통해 KT그룹 전체를 감독 지휘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별 단위노동조합이 아닌 KT그룹 전체 노동조합이 단일한 대외와 강력한 연대의 힘으로 사측의 탄압을 분쇄하고 노동자의 권리와 자주성을 강화하자고 선언한 바 있다.

한편, KT그룹노동조합협의회는 KT노동조합, KTF노동조합, KT파워텔노동조합, KT링크스노동조합, KT네트웍스노동조합, KT하이텔노동조합이 가입돼 있다.

2006년 임단협 승리

조합원여러분이 교섭위원입니다

노동조합은 7월말 임단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투쟁과 교섭의 힘은 바로 조합원 여러분의 단결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7월의 열기와 같을 때 사측의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우리함께 2006년 임단협 승리를 위해 달려갑시다!!



KT노동조합

하계휴가비 지급

지급대상 지급일 현재 재직 직원 (청경포함, 경영직 제외)
지급액 1인당 30만원(월드레스 카드)
지급예정일 2006. 7. 15

‘6·15 민족통일 대축전’

노동자가 나서 통일을 앞당기자

노동조합은 6월 14일 6.15공동선언 6돌을 맞아 광주에서 열린 민족통일대축전에 참석했다.

개막식이 열리는 첫날 많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에서도 광주월드컵 경기장은 축제의 분위기가 가득했다. KT노동조합을 비롯한 IT 연맹 조합원들은 함께 어깨동무를 하면서 문화공연을 관람하면서 남북이 하나임을 다시 느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개막식 특별연설을 통해 “한반도의 분단은 미국과 소련의 강대국이 2차대전 종전과 더불어 자의적으로 만들어 낸 것이다. 우리 민족에게는 알리지 않았고, 동의도 얻지 않은 채 이 땅을 둘로 갈라놓은 것”이라면서 “평화적으로 공존하고 평화적으로 교류협력하다가 때가 되면 평화적으로 통일하자”고 역설했다.

둘째날 각부분 상봉행사가 열린 가운데 노동자부분 상봉행사는 어느 부분 행사보다 뜨거웠다. 전쟁의 위협 속에서 민중의

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노동자가 가장 큰 피해자라면서 노동자가 나서 민족통일을 단지 구호가 아닌 현장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하자”고 역설했다.

민주노총 조준호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비록 외세에 의해 강요된 분단으로 반세기가 넘도록 나뉘어 살고 있지만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이 6년간 개척해온 민족단합의 성과 위에 오늘 우리 남북의 노동자는 또다시 하나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우리가 외친 구호가 대회 이후에도 각 지역과 현장에서 높이 울려 퍼지도록 하고, 오늘 우리가 가슴에 새긴 결의가 통일의 그날을 앞당기는 실천이 될 수 있도록 하자”고 역설했다.

북측 대표로 참석한 최창환 조선직총 통일부위원장은 “민족의 운명을 외세에 내맡기는 것은 우리 민족의 자존심, 우리 노동자들의 자존심이 허락치 않는다”면서 “노동자들은 노동자들끼리, 농민들은 농민



들끼리, 청년학생들은 청년학생들끼리 손을 굳게 잡고 민족공조의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해내외 동포들에게 드리는 공동호소문을 통해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통일 이룩하자 ▲민중자주로 통일의 활로를 열어나가자 ▲거족적인 평화운동으로 민족의 안녕을 지키자 ▲민족의 대단합으로 조국통일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자고 말했다.

6·15 민족통일 대축전 여성부문상봉 참가기

“통일의 꽃을 터트리는 씨앗, 남과 북의 여성들이 함께 뿌리자”

민족통일대축전의 둘째날 여성부문 상봉이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이루어 졌다.

행사장입구에 들어서니 광주지역 여성과 가족, 아이들이 통일에 대한 염원과 소원을 적은 쓴 가로 9m, 세로 7m짜리 대형 퀼트가 제일 먼저 눈에 띄었다.

한복을 곱게 입은 북측 여성대표들이 입장할 때 참석한 1000여명의 모든 사람들은 통일을 손에 들고 행사장 입구에서부터 길게 줄서서 ‘우리민족끼리 조국통일’, ‘반갑습니다’를 외쳤다. 참석한 모든사람의 얼굴에서 나타나는 기대, 설레임, 감동으로 하나됨을 느끼면서 통일이라는 단어가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마음 한구석이 아련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북측 단장인 리동희위원은 대표연설을 통해 “역사적으로 외세 침입에 가장 큰 피해를 본 이들은 여성과 아이”라며 “전쟁의 불행과 고통은 되풀이 되지 말아야 하며 그러자면 여성들이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남측 단장인 정현백 6.15남측위원회 여성본부 상임대표도 “6.15이후 남북관계는 순조로이 진행되고 있지만 국제적 여건은 답보상태”라며 “남과 북은 국제여성들과 협력해 동북아시아에 평화체제가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윤금순 6.15남측위원회 여성본부 공동대표와 곽철숙 6.15북측위원회 여성분과위원회 위원은 공동호소문을 번갈아 읽으며 ▲우리민족끼리 ▲민중자주로 ▲거족적인 평화운동으로 ▲민족의 대단합으로 조국통일을 이룩하자고 외쳤다.

남과북 대표들의 연설을 들으면서, 사투리와 익숙하지 않은 표현들이 있지만 우리는 같은 언어와 문화를 가진 한민족이구나 하는 생각이 더 간절하게 느껴졌다.

한편 환영식에 이어 펼쳐진 환영공연에서는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공연과 한국 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 연합회도 울동이 이어지며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특히 북측 인사들의 광주 방문에 따른 시민들의 반응을 담은 영상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는 북측 인사들의 뜨거운 박수 갈채를 받았다.

이밖에 민족춤 ‘출’은 시인 고은의 ‘대동강 앞에서’를 춤으로 형상화 했으며 전북여성농민노래단은 ‘서울평양 반나절’을 열창했다. 축하공연이 끝나고 남과북이 모두 일어나서 ‘기지를 타고 백두산을 향하는 그날까지’를 외치며 서로 기차피를 만들어 통일노래를 부르며 함께 춤을 추었다.

민족통일대축전이 남과북이 만나는 그날이 아니라 통일을 기념하는 기념일로 한라에서 백두까지 모두 함께 모여 축하하는 그날이 어서 왔으면 좋겠다.



6·15 공동선언의 의의

“남북이 상대로 인정하며 실질적인 교류 확대 가져와”

6.15공동선언문은 지난 2000년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합의한 것으로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경제 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이다.



6.15 공동선언 이전에도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7.4 남북공동성명 등과 같은 통일을 위한 남북간의 합의가 있었지만 서로의 체제에 대한 불인정이란 전제가 깔려있었고, 양측간의 적대시정책은 변함이 없었다. 그러나 6.15 공동선언은 서로가 통일의 동반자이며, 하나의 공식적인 체제임을 명시했다. 그러면서 통일을 위해서 우리의 힘으로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또한 김대중 대통령의 북한 방문을 통해서 베일에 쌓여있던 북한 최고지도부의 모습을 방송을 통해 공개되면서, 우리가 가졌던 북한에 대한 많은 오해와 편견을 씻어주는 계기도 되었다. 두번째로 경제협력과 교류의 활성화하다.

공동선언에 합의하면서 수많은 경제적 교류와 협력을 합의했다. 금강산 관광의 확대, 경의선 철도 연결, 개성공단 개발, 육로를 통한 북한 관광 등은 이미 상당부분 진전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세번째는 민간교류의 대폭적인 확대이다. 그동안 정부주도의 남북 교류로 인해 민간인이 북한에 가는 것은 거의 상상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공동선언 발표 이후 민간급 교류가 급물살을 타고 정부차원의 많은 지원 덕분에 북에 가고자 한다면 그리 큰 어려움이 없이 가능해진 세상이 되었다.

남측에서의 수많은 논란이 있던 8.15 민족공동행사를 위한 방북, 남북 노동자 통일대회, 남북 농민 통일대회, 각종 청년학생들의 교류 등 민간단체 주도의 수많은 방북이 이루어졌고, 또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이산가족 상봉의 확대와 지속적인 실시는 가족을 잃었던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계기가 되었고, 앞으로는 정기적인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연락소 또는 면회소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

네번째로 서로간의 대결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 대화체널의 합의이다.

정기적인 장관급 회담을 실시키로 함에 따라 남북이 장소를 번갈아가면서 장관급 회담을 개최하고 각종 합의 및 진행상황 점검과 갈등해소 노력은 서로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양쪽 정부차원의 노력의 결실이다. 한 대표적인 예로 국방장관급 회담은 서로를 겨누는 총칼을 쥔 군대의 수뇌들이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대화를 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대단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또한 관문점의 연락소 설치를 통해서 상호군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 등은 아직은 미흡한 부분이 너무도 많지만 양쪽 모두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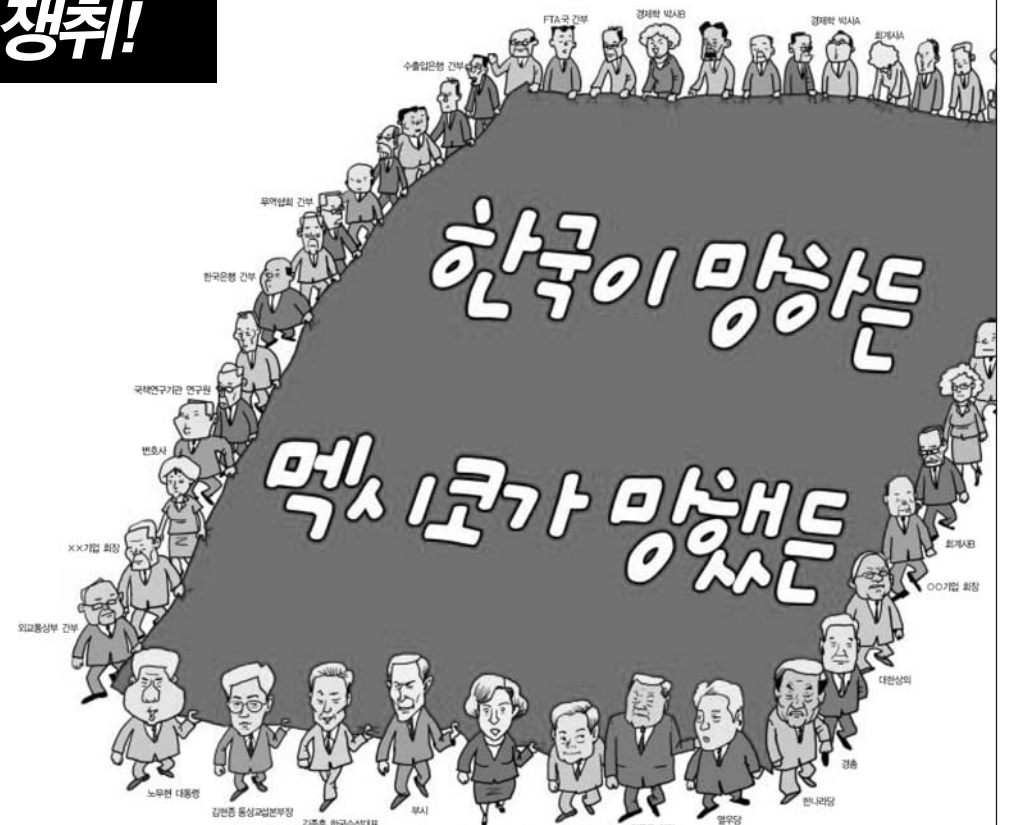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통일 이후의 국가 체제에 대하여 일정부분 합의했다. <하나의 체제, 하나의 정부, 하나의 국가>를 주장했던 남측과 <두개의 체제 인정, 두개의 연방정부, 하나의 통일(중앙)정부, 하나의 국가>를 주장한 북측이 <두개의 체제 인정>(낮은 단계의 연방제)이라는 국가체제에 합의를 하고 이런 방향에서 더욱 논의해 나가기로 한 것은 정치적인 통일도 이뤄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 FTA협상 저지! 노사관계 로드맵 폐기!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쟁취!

7·12 총파업

미국의 압력으로 끝난 한미 FTA 1차 협상!
한국은 빈손, 노동 분야는 단 하나의 이견도 없이 통과!
사채, 투지가본에 대한 내국민 대우 보장!
고용·환경·노동 관련 일체의 이행의무 부과금지!
투자자는 한국정부 상대로 제소권 행사!
한미 FTA 노사관계 로드맵 비정규약법... 무조건 막아내야 합니다.
노동자의 대표조직 민주노총의 힘을 보여주세요.

총파업투쟁 민주노총 결의대회 7월 12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한미 FTA 저지 국민 총궐기의 날 7월 12일 오후 4시 서울 시청



7일간의 한미FTA저지 원정투쟁을 마치고

미국 노동자의 연대와 지지 이끌어내

미국시민사회를 효과적으로 설득할 구체적인 고민과 토론이 필요

6월 4일~10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진행된 한미 FTA 저지 원정투쟁이 마무리됐다. 이번 원정투쟁은 그 규모에 비하면 적지 않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우리는 원정투쟁 과정에서 한미 FTA가 '실패한 모델'로 판명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냄으로써 미국 노동자와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와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첫째날, 한미FTA 저지를 위한 원정 시위대는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하여 조지 워싱턴 대학 학부기숙사에 거점을 잡고 상황실을 설치하고 이후 투쟁을 결의했다. 원정시위대를 포함한 현지 교민과 외국 참가자들 100여명은 앞으로의 투쟁을 활발히 벌이기 위한 사전 교육을 늦은 시간까지 진행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4일, 시위대는 토론으로 워싱턴에서의 둘째날을 시작했다. 재미위원회와 '풀뿌리 지구정의'가 주관한 이 토론회에는 노스캐롤라이나에 본부를 둔 '정의의 위한 흑인노동자연맹', 텍사스의 '남서부 노동조합', 플로리다의 '아모칼리 노동자연대' 대표가 참석해서 신자유주의와 대기업, 그리고 미국 주도의 자

유무역협정이 파괴한 근로자들의 삶에 대해 증언했다.

셋째날, 워싱턴 현지시간으로 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 본협상이 처음 열렸다. 시위대는 오전 8시 반에 협상장소인 미국무역대표부(USTR) 건물 앞에 집결했다. 오전 9시 김종훈 FTA 수석대표를 비롯한 협상 대표단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건물 앞에 도착하자 시위대는 구호를 외치며 격렬히 항의했다. 시위대는 협상이 진행되는 오전 내내 무역대표부 건물 앞에서 북과 팽과리를 울리며 'FTA 반대'를 외쳤다.

넷째날부터는 본격적으로 항의면담을 실시하고 인간띠잇기 등 행진과 퍼포먼스를 보였으며 마지막날 전통 장례 행렬을 지으며 시위를 전개했다. 투쟁단은 상복을 차려입고 "한국민중을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한미FTA를 반대한다"며 워싱턴 시민들에게 거리 선전전을 펼치기도 했다.

이번 원정투쟁을 통해 다른 무엇보다도 한미 양국 노동자의 공동 투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한미 양국 노동조합은 '한미 FTA 협상 중단'을 공동으로



요구하면서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강력한 반대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결의를 함께 다졌다. 국가 이익을 넘어 노동자 공통의 이해를 기반으로 연대를 실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원정투쟁은 우리 투쟁의 약점과 과제도 드러냈다. 한국 정부가 대변하지 않고 있는 FTA에 대한 민중의 '다른 목소리'가 있음을 알려내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미국 시민사회를 좀 더 효과적으로 설득할 것인가에 관해 보다 구체적인 고민과 토론이 필요하다. 미국 노동자들과 시민사회, 나아가 미국 의회까지도 설득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와 논리의 개발은 대단히 시급한 과제이다.

강희수 <IT연맹 수석부위원장>

민주노총 7.12 총파업 단행

15차 중집열어 로드맵 분쇄 7.12총파업 가결



민주노총이 7월12일 총파업과 노사정대표자회의의 참여 등을 포함한 당면 투쟁방향을 확정했다.

민주노총은 6월19일 오후2시부터 열린 제15차 중집위에서 노사관계 민주화 방안과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세부 투쟁계획을 의결하고, 노사관계 민주화 방안을 마련해 노사정 교섭에 나서기로 하는 등 당면 투쟁을 본격화했다.

이날 중집위에서 확정된 투쟁계획에 따르면 △노사관계로드맵 저지 △한미FTA협상 저지 △특수고용 노동3권 쟁취를 사회적 쟁점으로 만들어내고, 투쟁전선을 구축하기 위해 민주노총은 7월12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뿐만 아니라 1노조1교육과 현장토론회로 조합원 교육전선을 강화하며, 각종 토론회, 대국민선전전 등을 펼쳐나가는 방침이다. 특히 민주노총 차원의 강력한 투쟁 의지와 요구를 안팎에 알리고 7월12일 총파업을 조직하기 위한 지도부의 선도적인 투쟁도 배치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특수고용 노동3권 입법안과 노사관계 민주화 입법안을 7-8월 중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민주노총은 ILO 권고안을 정부가 즉각 이행토록 촉구하고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한 다채로운 투쟁을 벌이며, ILO 아태지역 총회가 열리는 8월29일-9월1일에는 행사 장소인 부산에서 대규모 집회와 국제토론회 등을 연다.

또한 6월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비정규직법안이 강행처리될 가능성에도 대비한다. 실질적인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 쟁취를 위한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법안 재논의를 추진하는 한편 강행처리가 예상되면 즉각 총파업에 돌입해 막아낸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총파업 투쟁의 구체적 지침은 위원장에게 위임했다.

이날 중집에서는 또 민주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요구안을 확정짓고, 노사정대표자회의의 참여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노사관계 로드맵의 허구성과 반노동자성을 폭로하고, 이에 맞서는 민주노총의 노사관계 민주화 요구안을 쟁점화시켜 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전임자 임금, 복수노조 교섭권, 특수고용 노동3권, 공무원 노동기본권, 직권중재, 손배기압류, 산별교섭제도 등 주요 쟁점별로 관련 산별연맹(노조)이 참여하는 교섭단을 운영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사정대표자회의의 참여시기 등 구체적인 전술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되, 참여 이후 합의나 결렬 등 중대한 상황이 발생하면 곧바로 투본대표자회의(중집위)를 열어 승인반도록 했다.

노사정대표자회의는 지난 5월24일 운영위에서 노사관계 로드맵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합의하고 △집단지 노사관계(17개 항목) △개별적 노사관계(3개 항목) △노사협의회의(5개 항목) 등 25개 항목을 우선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한편 민주노총은 15차 중집위에서 저출산고령화 협약도 인준했다. 최근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에서 논의를 벌여오던 협약안은 이날 민주노총이 인준함에 따라 다음 날인 20일 상공회의소에서 체결식을 가졌다.

현대·기아차 산별전환, 거대 산별 금속노조 탄생

4만 금속노조에서 16만 조직으로 확대... 원하청 노동자 단일노조 가입

현대자동차노조가 30일 기업별노조를 청산하고 산별노조로 전환했다. 현대자동차노조는 30일 오후 4시까지 진행된 개표 결과 조합원 43,758명 가운데 39,966명이 투표에 참가해 찬성 28,590명(71.5%), 반대 11,172명(27.9%)로 2/3를 훨씬 웃돌면서 가결됐다.

오후 4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최종 개표 결과를 발표하자 노조 간부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노조 간부들은 보수언론의 집요하고 악의적인 악선전과 회사 관리자들의 은밀한 방해로 물리치고 마침내 산별노조로 전환에 성공했다는 사실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현대자동차노조는 '남한 노동운동의 새 지평을 연다'는 성명을 내고 "4만3천 조합원들은 현대자동차노동조합 19년 역사를 뒤로 한 채 이제 금속노조시대의 새로운 역사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또 현대자동차는 "4만3천 조합원들의 투쟁력과 단결력은 금속노조 16만 조합원과 함께 새로운 각오로 산별역사를 만



들어 갈 것'이라며 "이러한 투쟁력은 금속노조의 새로운 힘이 될 것이고 산별협약을 완성시킬 투쟁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자동차노조는 오후 5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노동조합 앞에서 노조간부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공식 찬반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대우자동차노조도 조합원(9,149명) 중에서

8,434명이 투표에 참가(92.2%)해 6,495명이 찬성(77%), 반대 1,793명(21.5%)로 가결됐다. 로템노조는 조합원 2,098명 중에서 1,920명이 투표에 참가(91.5%) 찬성이 1,490명(77.6%), 반대가 412명(21.4%)로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됐다.

이 밖에도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조(1,113명) 97.5%, 대우자판노조(149명) 97.9%, 두원정공노조(538명) 91.8%, 진광 ENC(47명)

71.4% 등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다.

금속연맹은 오는 10월까지 미진한 기업노조 전체의 산별전환을 끝내고 해산하게 된다. 금속노조는 기존 4만명의 조합원에서 14만명의 조합원으로 대규모 단일 산별을 완성하게 되며 원하청이 단일 노조로서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된다.

금속연맹은 산별노조의 완성을 통해 총고용량에 대한 교섭을 통해 노동시장에 개입하고, 산별연금이나 산별고용보험, 직업훈련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향후 비정규직 가입 확대 및 화학섬유노조와의 통합을 통해 2010년 30만 조직, 그리고 2015년에는 50만명이 가입하는 거대 산별조직을 건설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한미 FTA 통신산업 관련 공청회 개최

일시: 2006년 7월 7일(금) 15시 ~ 17시

장소: 한국전산원 지하 강당

주제: 미국 요구 수용해도 통신산업 큰 문제 없는가?

발제 및 토론자
 발제 : 김병근 교수(한국기술대)
 토론 : 유승희(과기정 의원), 최준근 교수(한국정보통신대학교), 지재식(KT노동조합 위원장), 기타 산업계(KT 혹은 SKT), KISDI, 시민단체 참여 예정

주요 논의 사항
 -한미 FTA 통신산업에서 미국의 요구와 분석
 -미국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미치는 문제점 토론
 -한미 FTA 전 산업부문에서 통신산업부문이 희생자가 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 토론.
 ※ 공청회 1시간전 뉴질랜드텔레콤의 자본제한철폐가 폐해 사례 발표

전국IT산업노동조합연맹



명예퇴직 관련 전직휴직 노사합의

사실상 명예퇴직은 확대... 단체협약에 반영키로

노동조합과 회사는 2006년 2/4분 명예퇴직부터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조합원에게 전직휴직 6개월을 추가 지원하기로 합의 했다. 또한 이에 따른 단체협약을 2006년도 단체교섭시 별도 개정토록 했다.

사측은 그동안 조합원들에게 음성적으로 명예퇴직을 중용하면서 퇴직을 희망할 경우 전직지원휴직을 주겠다는 당근책을 사용해왔다. 그러면서 조합원들에게 특혜를 주는 낱 소문을 유포해왔다. 이에 노동조합은 전직지원휴직

을 양성화 및 제도화 시켜버림으로써 사측의 명예퇴직 관련 압력수단을 차단하고자 했다. 또한 조합원과 전직휴직이 부여된 비조합원(관리자) 간의 명예금 차이로 인한 조합원 불만 해소키로 했다.

이번 합의로 사실상 명예퇴직금이 확대됐다. 현재 최대 45개월까지 명예퇴직금을 받을 수 있지만 전직휴직을 신청할 경우 보상액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명예퇴직 관련 단체협약 조항

제31조(명예퇴직) 회사는 20년 이상 근속한 조합원이 질병 및 공상자이거나 정년퇴직일 1년 이상 전에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퇴직시킬 수 있다. 단, 노사가 별도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기별 시행한다.

제49조(명예퇴직금) ①회사는 제31조에 의거 명예퇴직자에 대하여는 기존 연봉 월정액의 100분의 75 또는 기본급에 제2항에 의거 산출한 잔여월수를 곱하여 계산한 명예퇴직금을 지급한다. ②잔여월수의 산정방법은 퇴직일월부터 정년퇴직일 5년이내의 잔여월수 매2월당 1월로 계산하고, 5년을 초과한 10년까지는 5년까지의 잔여월수에다가 5년을 초과하는 잔여월수 매4월당 1월을 가산하여 산출한다. 다만, 잔여월수 계산시 4월 미만은 1월로 계산한다.

UNI 통신분과 세계대회

지재식 위원장 “와이프로와 고용”발표



지재식 위원장은 6월14-15일에 스위스 니온에서 열린 UNI 통신분과 세계대회에 참석했다.

이번대회는 ▲공공정책 측면에서 통신산업의 보편적 서비스 ▲다국적 통신사의 투명경영과 국경을 초월한 통신산업 노동자들의 연대를 주제로 토론이 이뤄졌다.

래리 코헨 통신분과 의장은 “미국의 경우 인터넷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초고속 인터넷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고 설명하며 “정부의 통신산업 지원책이 부족하고 시장지배에만 의존함으로써 수 백만 명이 소득과 지적 차이로 인한

디지털 소외현상을 겪고 있고, 통신노동자들이 저임금 불안정 비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지재식 위원장은 KT의 와이프로 개발 및 상용화에 대한 발표를 하여 참석자 모두에게 많은 관심을 모았다. 특히 발표 후 질의시간 중에도 노동조합이 고용창출과 기업의 미래를 위해 신기술 개발과 사업확장과 관련한 사업인가를 관계부처에 요구해 왔다는 설명에 참석자들이 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또한 아일랜드 통신노동자(CWU)의 우리사주제도 사례도 주목을 받았다. CWU는 1999년 ERICOM 통신이 민영화된 이후 정부와 협상해 지분의14.9%를 우리사주신탁

으로 확보하고 경영진과 파트너십 경영을 시작했다. 이후 2001년 두개의 벤처캐피탈이 Ericom을 매입하려고 하자 Valencia 콘소시엄과 함께 입찰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90백만 유로를 차입하여 우리사주신탁의 지분을 29.9%를 증가시켰다. 동시에 이사회에 우리사주신탁이 추천한 2명의 이사를 선임했다. 다시 2005년에 들어 Ericom이 적대적 인수에 대상으로 떠오르자 미국계 기업인 B & B가 Ericom을 인수후 분할 매각을 계획했다. 이에 노조가 분할 매각을 반대하고 B&B와 협상하여 공동 입찰로 참여한 후 기존의 노사간 파트너십 관계, 연금권 등을 유지하는 내용의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

고 오용철 김양중 동지 추모행사

KT노동조합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다 먼저 산화해 가신 고(故) 오용철·김양중 동지의 추모행사가 각각 거행됐다. 고 김양중동지의 추모5주기 행사는 지난 6월 10일 유가족과 동지의 지인들 그리고 중앙본부 유충용 조직위원장, 서부지방본부 이용각위원장과 조합간부들, 전남지방본부 임종대위원장과 조합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전담 순천시 시립화장장 (아름동 소재)에서 치러졌다.

KT노동조합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다 먼저 산화해 가신 고(故) 오용철·김양중 동지의 추모행사가 각각 거행됐다.

고 김양중동지의 추모5주기 행사는 지난 6월 10일 유가족과 동지의 지인들 그리고 중앙본부 유충용 조직위원장, 서부지방본부 이용각위원장과 조합간부들, 전남지방본부 임종대위원장과 조합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전담 순천시 시립화장장 (아름동 소재)에서 치러졌다.

다. 조합간부들은 노동자의 아픔을 먼저 깨닫고 민주노조의 깃발을 움켜쥐고 앞장섰던 고인의 뜻을 기리며 추모했다.

고 오용철동지 제10주기 추모제는 지난 6월 17일 토요일에 가축전지과 강남지방본부 그리고 고인을 기억하는 많은 동지 등 30여명이 모인 가운데 고인이 영면해 계신 철원 목련공원묘원에서 거행됐다. 이날 강인석 조직3국장이 읽은 추모사에서 살아생전 KT노동조합

을 위해서 불꽃같은 삶을 살았던 고인을 추모했으며, 유가족 전 위원장과 유가족 조합원의 추모사가 이어졌다.

더욱이 이번 추모제는 95년 당시 김영삼정부에 의해 국가전복세력으로 몰리면서 한국통신 투쟁으로 해고된 노조간부에 대하여 “민주화운동관련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자로 인정받은 후 처음 치루어진 행사여서 그 의미를 더했다.

유니폼 봉제사별 하자내역 A/S 조치

현장조합원 유니폼 착용,지급실태 파악 및 개선의견을 수렴코저 노,사 합동 실태조사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2005년, 2006년 유니폼 지급분중 봉제사별 하자내역에 대한 A/S를 실시한다.

• 조치사항

2005년,2006년 유니폼 지급분중 봉제사별 하자내역 A/S

• A/S 조치방법

○ 지급물량 전량 회수 및 A/S
- 지사/지점 담당자 전체 지급 물량 회수
- 봉제업체 전달, A/S 조치 후 재지급

○ 하자 신청분 A/S 조치

- 지사/지점 담당자 A/S 신청 접수
- 봉제업체 회수, A/S 조치후 재지급

• 일정

- 봉제사별 하자사항 전 조합원 공지 및 A/S 해당봉제사 회수 : ~ 2006. 7. 5
- 봉제사별 A/S조치 및 재지급 : ~ 2006. 8. 4
- 2차 노,사합동 실태조사 : ~ 2006. 8. 31

• 향후개선

- 향후 품질검사에 미달되는 봉제업체 강력 제재 조치
- 전반적인 유니폼 제작 프로세스 개선 (매뉴얼 제작/전산화 추진)
- 대행사, 디자인사, 봉제사 등 관련기관 역할 재정립

유니폼 AS 대상기관

구분	대상 품목	봉제업체	대상기관
지급물량 전량 회수 및 A/S	2006년 하계 작업복 바지	벽공물산	수도권강북본부 : 구리지사, 의정부지사, 서울중부NSC, 경기북부NSC 수도권강남본부 : 분당지사, 성남지사, 경기동부NSC 수도권서부본부 : 강서지사, 영등포지사, 구로지사, 안양지사, 안산지사 대구본부 : 대구지사, 동대구지사, 서대구지사, 수성지사, 동대구NSC, 대구NPC 전북본부 : 전주지사, 북전주지사, 정읍지사, 전북서부 NSC 강원본부 : 원주지사, 춘천지사, 강릉지사, 동해지사, 강원NPC
		지구사	대구본부 : 본부자체, 구미지사, 안동지사
	2006년 하계 고객방문복 바지	벽공물산	수도권강북본부 : 구리지사, 의정부지사 수도권강남본부 : 분당지사, 성남지사 수도권서부본부 : 강서지사, 안양지사, 안산지사 대구본부 : 대구지사, 동대구지사, 서대구지사, 수성지사, 동대구NSC, 대구NPC 전북본부 : 전주지사, 북전주지사, 정읍지사 강원본부 : 본부자체, 춘천지사, 강릉지사, 강원NPC
		필동사	전남본부 : 본부자체, 전남NPC
하자 신청분 A/S 조치	2005년 하계 고객방문복 셔츠	벽공물산	수도권강북본부 : 고양지사, 강북지사, 해화지사, 중앙지사 대구본부 : 동대구지사, 구미지사, 안동지사 전북본부 : 전주지사, 익산지사, 전북동부NSC, 전북서부 NSC 강원본부 : 원주지사, 춘천지사, 강릉지사, 동해지사
		필동사	전남본부 : (구) 광주CSC, 광주NSC, 전남NPC
	2006년 하계 작업복 바지	승업사	부산본부 : (구)동부산CSC, (구)울산CSC
		유니코상사	수도권강남본부 : 강동지사, 서초지사, 신사지사
2006년 하계 고객방문복 셔츠	유니코상사	수도권강남본부 : 강동지사, 서초지사, 신사지사	
	필동사	전남본부 : 광주지사, 순천시지사, 서광주지사, 광산지사,	

2006년 하계 휴양시설 이용안내

조합원과 가족들의 여름휴가, 복지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2006년 하계 휴양시설이 오는 7월 22일부터 운영된다.

□ 운영기간:하계휴양소(7.22~8.20),수련관(7.21~8.20),콘도미니엄(7.14~8.20)

□ 이용기준 : 5~10인, 2박3일(제주 3박4일)

□ 운영객실:하계휴양소(21개소453실), 수련관(6개소395실), 콘도미니엄:미정(콘도회사 추첨 예정)

□ 운영방침

- 이용자 선정기준: 이용실적이 저조한 사원 우선 (단, 생활입소대상자는 하계휴양기간 외 우선 배정)
- 입소시 "휴양소이용권"과 "신분증"제시 => 각 휴양소입소 (당일 14:00 ~ 20:00), 퇴소(당일 10:00까지,정소시간 확보)
- 기준인원 및 입,퇴소 시간 준수 철저,외부인 대리입소 금지
- 입소불가시 소속기관과 운영기관에 즉시 통보

□ 수련관

• 객실수(395실):도고(80),지리산(87),경주(60),용평(56),거제(59),무주(53)

• 이용기준

입소정원 : 5인실(도고,지리산,무주),7인실(경주,용평,거제,무주), 10인실(도고, 지리산)

이용일수 : 2박 3일(하계휴양기간 동안 3박4일 이용제도 폐지)
객실배정 : 현행 배정방식(기관별 현원기준 배정) 적용

□ 콘도미니엄

• 운영규모 : 각 콘도사 배정 객실 범위 내 운영

• 객실배정:복지관리시스템 사원별 신청=>콘도사 추첨(배정) => 승인(본사)

• 이용지역

회사명	이용가능 콘도	이용문의	홈페이지
한화콘도	설악,백암,용인,수안보,대천,산정호수,해운대,경주,지리산,제주	1588-2299	www.hanwharesort.co.kr
한국콘도	설악,수안보,해운대,경주,도고,제주,남원	02-780-3001	www.koreacondo.co.kr
대명콘도	설악,양평,홍천,제주,단양,경주	02-2222-8885	www.daemyungcondo.com
하일라콘도	설악,백리,동해,비치,돈산,경주,제주	02-588-0631	www.clubhighla.co.kr
금호콘도	설악,충무,화순,제주	02-737-5400	www.kumhoresort.co.kr
코레스코콘도	설악,삼포,수안보,치악산,경주,제주,강화,가평	02-559-6000	www.korescocondo.com
계	6개 콘도사, 40지역		

□ 하계휴양소

기관	휴양소	종류	지역	평형	입소인원	홈페이지
강북본부	무이밸리펜션	펜션	평창	18	4-6	www.muivalley.co.kr
	설악파인프라자	콘도	속초	25	5-7	www.pineresort.com
강남본부	니코미코	펜션	평창	21	4-5	www.nikomiko.co.kr
서부본부	대비발디	콘도	충천	19	4-5	www.vivaldipark.com
	글로리콘도	콘도	부산	18	4-6	www.glori.co.kr
부산본부	남송가족관광호텔	콘도	남해	11	4-6	www.namsongresort.co.kr
	간월산휴양림	휴양림	울산	7	4-5	www.kwmt.co.kr
전남본부	금호콘도	콘도	화순	17	4-8	www.kumhoresort.co.kr
	사평휴양림	휴양림	화순	12	6-8	www.san.go.kr
	안양산휴양림	휴양림	화순	12	5-8	www.안양산휴양림.com
대구	해바라기모텔	모텔	문경	9	4-7	
	하일라콘도	콘도	경주	21	5-7	www.clubhighla.co.kr
충남본부	환상의바다펜션	펜션	대전	10	4-6	www.oceanofantasy.com
전북본부	중앙하이츠	콘도	남원	18	4-6	www.clubhighla.co.kr
강원본부	형성휴양림	휴양림	형성	14	6-10	www.hengseong-fi.co.kr
	주천강휴양림	휴양림	형성	14	6-8	www.joochun.com
	연호콘도	콘도	설악	25	4-6	www.yunhocondo.co.kr
충북본부	청풍리조트	호텔	제천	10	4-5	www.cheongpungresort.co.kr
제주본부	토비스콘도	콘도	애월	17	5-7	http://lovice.gazio.com
	그랜드호텔	호텔	연동	10	3-5	www.grand.co.kr
네트워크부문	영랑호리조트	콘도	속초	20	5-7	www.yrhresort.co.kr